

# 傷寒論

상한의 치험 醫案

오준호

## 상한변결(傷寒便結)

《名醫經驗錄》中

一人三月間得傷寒, 發熱, 小便淋瀝, 大便不快, 初病莖中痛, 出小精血片, 如棗核大

어떤 사람이 3월경에 상한을 앓게 되어 열이 나고 대소변이 시원하지 않았으며 초반에는 음경이 아프면서 대추씨만한 작은 정혈(精血) 덩어리가 나왔다.

由是皆謂房事所致，遂在虛中，證治用補中益氣湯，七八日后，熱尤甚，大渴引飲，胃中滿悶，言語錯亂。余診，六脈俱微數，右長而沉滑，左手若平，亦沉實而長。余曰，此大實大滿，屬陽明經，宜用大承氣湯，衆皆驚愕曰，先生誤矣，余不聽，作劑，連進二服，大瀉后，熱退氣和而愈。因食鴨肉太多，致復熱，余教用鴨肉燒存性，生韭汁調服六七錢，下黑糞一碗許而全愈。

이를 보고 의원들이 방사(房事) 때문이라고 말하여 독방생활을 하면서 보중익기탕으로 증상들을 치료하였다. 그러나 7-8일 후에 열이 더욱 심해지고 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으며 속이 답답해지고 말도 어눌해졌다. 내가 진맥해보니 육맥이 모두 미(微)·삭(數)했는데 오른쪽은 장(長)하면서 침(沈)·활(滑)하며 왼쪽은 평(平)한 듯했지만 역시 침(沈)·실(實)하면서 장(長)하였다. 내가 “이것은 대실대만(大實大滿)으로 양명경에 속하니 대승기탕을 써야한다.”고 하자 다른 의원들이 깜짝 놀라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약을 지어 2번을 연달아 먹게 하자 크게 설사한 후 열이 떨어지고 안정되며 나왔다. 그 후에 오리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다시 열이 나게 되자 내가 약성이 남도록 태운 오리고기를 싱싱한 부추즙에 섞어 6-7돈 먹으라고 일러주었더니 새카만 똥을 한 사발 싸더니 완전히 나왔다.

## ■ 大承氣湯 | 대승기탕

大黃 四錢, 芒硝 二戈, 甘草 一戈. 水煎去滓, 后入硝, 再煎服.

대황 4돈, 망초 2돈, 감초 1돈. 대황과 감초를 물에 달여 찌꺼기를 거른 후 망초를 넣어 다시 달여 먹는다.

## 상한기축(傷寒氣築)

[《名醫經驗錄》中](#)

一人年至十八，四月間得傷寒，惡寒發熱，大渴，舌上白苔，三日前，身脊俱痛，百節亦痛，至四日，惟脇痛而嘔自利，六日后來問。

18세가 된 어떤 사람이 4월경에 상한을 앓게 되어 오한발열, 심한 갈증, 백태가 있었다. 걸린 지 3일까지는 몸과 등이 아프고 온 관절이 아팠으며, 4일째부터는 옆구리만 아프며 구토와 설사를 했고, 6일 지난 후에야 치료받기를 청해왔다.

余診，左右手脈皆弦長沉實且數，此本三陽合病，太陽已罷，小陽與陽明仍在。與小柴胡湯合黃連解毒湯，服三貼，脇痛口逆，皆除，惟熱尤甚，法當死也。省面上，有紅色淨潔，而無賊邪之氣，言語清亮，間有譫語，而不甚含糊。余故不辭去，復與治用涼膈散，服二貼，視其所下，如前自利清水，其痰氣亦不息。

내가 진맥해보니 좌우의 맥이 모두 현(弦)·장(長)·침(沈)·실(實)하면서 삭(數)하였다. 이는 본래 태양·소양·양명이 합해진 병이었으나 태양병은 이미 끝났고 소양병과 양명병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소시호탕과 황련해독탕을 합하여 주니 3첩을 먹고 옆구리의 통증과 구토는 모두 사라졌으나 열은 더욱 심해져 죽을 것만 같았다. 낮빛을 살펴보니 붉은빛으로 깨끗한 것이 사기(邪氣)가 보이지 않았고, 말은 또렷하여 간혹 섬어(譫語)가 있지만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내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돌아간 후에 양격산을 처방해 주었는데 2첩을 먹이고 대변을 살피니 여전히 맑은 물 같고 담기(痰氣)도 끊이지 않았다.

與大承氣湯合黃連解毒湯，二貼，其所下利亦如前。余曰此皆熱結不開，而燥屎不下耳，後以二方，相間日三四貼，每藥五貼，如得結糞，如肥棗大者十數枚，痰與熱漸減，至十五日，熱退氣和。一醫者問曰，傷寒論謂下後不可再下，連日用此峻劑獲安者，何也。答，燥屎不下，而脈常實，胡爲不可再下也。是故，爲醫者不可膠柱也。

이번에는 대승기탕에 황련해독탕을 합하여 주었는데 2첩을 먹어도 대변이 여전히 같은 상태였다. 내가 “이는 모두 열결(熱結)이 풀리지 않아서 조시(燥屎)가 나오지 않는 것일 뿐이다.”고 말하고 나중에 쓴 2개의 처방을 번갈아가며 하루에 3-4첩씩 각각 5첩을 쓰니 통통한 대추 크기 만하고 단단한 대변이 열 개 넘게 나오고 담과 열도 점차 줄어들었으며 15일이 지나자 열이 내리고 몸이 안정되었다. 어떤 의원이 “《상한론》에는 하법을 썼으면 다시 하법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연일 이처럼 독한 약을 써도 편안하게 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묻기에 “조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맥은 계속 실(實)한데 하법을 또 못쓸 이유가 있는가.”라고 대답해주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원은 하나의 치료법만 고수하면 안 되는 것이다.

## ■ 黃連解毒湯 | 황련해독탕

柴胡 二戈, 黃連·黃芩·人參·半夏·黃栢·梔子 各一戈, 甘草 五分. 干三召二.

시호 2돈, 황련·황금·인삼·반하·황백·치자 각 1돈, 감초 5푼. 생강 3조각, 대조 2개.

## ■ 凉膈散 | 양격산 청심탕(淸心湯)

連翹 二戈, 甘草 一戈, 梔子·黃芩·吉更·薄荷 各五分, 竹葉 七片, 大黃(煨) 三戈. 入蜜小許, 水煎服.

연교 2돈, 감초 1돈, 치자·황금·길경·박하 각 5푼, 죽엽 7조각, 대황(잣불에 굽는다) 3돈. 꿀을 조금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 ■ 承氣解毒湯 | 승기해독탕

大黃 四戈, 芒硝 二戈, 甘草·黃連·黃芩·黃栢·梔子 各一戈.

대황 4돈, 망초 2돈, 감초·황련·황금·황백·치자 각 1돈.



## 상한조열흉만(傷寒潮熱胸滿) [《傷寒經驗方》中](#)

一官人得傷寒，諸醫多用發表之劑，潮熱升降，胸滿不睡。召我診之，脈沈伏緩滑，此未及治挾痰之毒熱，用大承氣湯加生地黃 三錢，日再服五貼，大勢似歇。主家甚喜。

어떤 관리가 상한을 앓게 되어 여러 의원들이 땀내는 약[發表劑]을 많이 썼더니 조열(潮熱)이 오르내리고 가슴이 그득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를 부르기에 진맥을 해보니, 맥이 침복(沈伏)하고 완활(緩滑)하였다. 이것은 담을 끼고 있는 독열(毒熱)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승기탕\(大承氣湯\)](#)에 생지황 3돈을 더하여 하루에 2차례 먹여 5첩을 썼더니 대세가 멎은 듯하였고, 주인 집안에서는 매우 기뻐하였다.

更診則兩尺有滑數之意. 余曰: “隱熱猶未盡祛, 膈間亦不得利, 及服三白散以滌餘毒.” 主家至親有知醫者, 以爲病輕藥重, 決不可用. 更邀他醫, 用輕清調理之劑, 病人顏色悽慘, 晝夜叫痛. 諸醫不移侍之皆曰: “以脈度言之, 不數必無熱, 而按之無力, 必是氣虛.” 製用六君子湯四貼, 痛聲尤出, 粥飲亦廢. 一醫用月經, 膈間煩滯而不下, 舉家罔措.

다시 진맥을 해보니, 양 척맥에 활삭(滑數)한 기미가 있었다. 내가 “숨어 있는 열을 아직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흉격 사이도 열담(熱痰)이 풀리지 않았으니, [삼백산\(三白散\)](#)을 복용하여 남은 독을 씻어내어야 합니다.”하고 말하였으나, 주인 집안의 지친(至親) 중 의술을 아는 자가 가벼운 병에 약기운이 센 약은 절대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다시 다른 의원을 불러 가볍고 맑은 성질로 조리해주는 약[輕清調理劑]를 썼더니, 환자의 안색이 처참해지고 밤낮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여러 의원들이 변함없이 모시며 모두 “맥도(脈度)로 보자면 삭(數)하지 않으니 반드시 열이 없을 것이고, 눌러보아도 힘이 없으니 필시 기가 허한 것입니다.” 하고는, 육군자탕(六君子湯) 4첩을 지어 썼더니 아파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나오고 미음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한 의원이 [월경수\(月經水\)](#)를 썼지만 흉격 사이가 답답하게 막혀 내려가지 않자 온 집안사람들이 손쓸 바를 몰랐다.

余診之, 寸關澁數, 時有結氣, 兩尺沈小滑實. 余曰: “此病下焦隱熱未能滌下, 熱痰窒滿胸膈, 而脈之澁小, 熱傷元氣故也.” 諸醫曰: “誰能洞見臟腑乎?” 相與哂笑

내가 진맥을 해보니, 촌맥과 관맥이 삼삭(澁數)하고 때로 결(結)의 기운이 있었으며, 양 척맥이 침소(沈小)하고 활실(滑實)하였다. 내가 “이 병은 하초에 숨어 있는 열을 다 씻어내리지 못하여 열담(熱痰)이 흉격에 가득 차 막힌 것이니, 맥이 색소(澁小)한 것은 열이 원기를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니, 여러 의원들이, “누가 장부를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비웃었다.

“今明間如不用背城之戰，氣血俱竭，難可下手。”病人一家始驚動，懇求藥方。以大承氣湯加生地黃 一兩，日再服，兼以地龍汁調牛黃膏數十丸，日用二器，夜服一器之意，申申叮囑。病家依余言用之二日，病人仍得穩睡有食念，大便滑泄。余又診之，脈始遲而數有力。又勸用二日，大泄之，諸症漸退。改以柴胡四物湯加大黃 二錢，日再服三日而差。

내가 “조만간 배성(背城)의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기혈(氣血)이 모두 고갈되어 손을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환자의 온 집안사람들이 비로소 놀라 간절히 처방을 구하였다. 때문에 [대승기탕\(大承氣湯\)](#)에 생지황 1냥을 더하여 하루에 2차례 먹이고, 아울러 [지령의 즙](#)에 [우황고\(牛黃膏\)](#) 10환을 타서 낮에는 2그릇, 밤에는 1그릇을 먹이라는 뜻을 신신당부하여 일러주었다. 환자의 집안에서 내 말대로 2일 동안 약을 썼더니 환자가 이윽고 편히 자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며 대변이 줄줄 나왔다.

내가 또 진맥을 해보니, 맥이 처음에는 지(遲)했으나 삭(數)해지고 힘이 생겼다. 또 2일 동안 더 권하여 썼더니, 크게 설사하고는 여러 증세가 점점 사라졌다. 다시 [시호사물탕\(柴胡四物湯\)](#)에 대황 2돈을 더하여 하루 2차례 3일을 먹이니 나았다.

病人之弟賀曰：“此病若不救，吾嫂氏已磨劍待之矣。必欲刺用藥醫，故吾輩深憂之，今果收效，兩家之多幸。”余聞此言，不覺心悚。如或熱重氣弱，已成陽耗陰竭而不救，則此豈醫罪？不知醫理之婦人，不思用藥之晚，持刀突出，其驚爲如何哉？余治傷寒重病，起死回生，未知幾許，而略服最駭處，以戒後人。

환자의 동생이 하례하며 “이 병에서 살려내지 못했다면, 우리 형수가 이미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어 필시 약을 처방한 의원을 찌르고자 하였을 터라, 우리들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지금 마침내 효험을 보았으니 양가의 다행입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다.

만약 열이 심하고 기가 약하여 양기가 소모되고 음기가 고갈되어 살릴 수 없게 되었다면, 이것이 어찌 의원의 죄란 말인가? 의술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부인이 약을 사용하는 시기가 늦어졌음을 생각지 않고 칼을 들고 튀어나왔다면, 그 놀라움이 어떠했겠는가? 내가 상한의 중병을 고쳐서 기사회생시킨 것이 헤일 수 없지만, 대략 가장 놀라운 경험이기때 후인들의 경계로 삼고자 한다.